경제혁신 창조경제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9월 25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.방송.통신 9월 24일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다자통상협력과 김진 과장(044-203-5640), 구교영 사무관(5645)

글로벌 가치사슬(GVC)을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전략 논의

- 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글로벌 가치사슬 국제워크숍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9. 24.(목),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**전기·전자 업계, 연구자 및 정부관계자** 등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**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중소기업 글로벌 가치사슬* 국제워크숍」**을을 열었다,

*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, GVC) : 연구·개발, 제조, 판매, 사후관리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활동의 전과정이 전세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조
(예) iPhone은 개발사인 애플외에 삼성전자, 폭스콘(Foxcon) 등 수많은 기업이 연구·개발, 부품공급, 조립, 마케팅, 물류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참여하여 생산된 제품

<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촉진 워크숍>
- **일시·장소**: '15.9.24(목) 09:00~17:50,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(2F, 사파이어볼룸)
- **참석대상**: 전기·전자 분야 국내외 기업인, 연구자, 정부 통상정책 담당자 등
- **주요내용**: 중소기업의 GVC 참여 필요성, 장애요인 및 대응전략, 정책지원방안 등

○ 이번 워크숍은 작년 11월 베이징 **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**이하 **APEC) 정상회의**에서 승인한 **「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사업」* 의 일환으로 열렸다.**

* APEC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사업 : 우리나라 주도로 총 6개국이 참여하며, 주요 산업별로 중소기업 역량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제시
- 정보기술(IT)/전기전자(한국), 자동차부품(필리핀, 말레이), 섬유(베트남), 헬스케어(미국), 농식품(태국)

□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**환영사**를 통해 "해외진출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**가치사슬 형성에 참여하는 기업·정부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.**"라고 강조했다.

□ 이번 워크숍에서는 **중소기업의 '글로벌 가치사슬' 참여 장애요인과 참여전략**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.

○ **김기찬 국제중소기업학회 회장**은 "**한국 기업**의 경우 수출확대보다 **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강화하는 전략**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."라고 말했다.

○ **앤더스 애로(Anders Aeroe) 국제무역센터(ITC) 시장개발과장**은 "기업들이 세계은행이 개발한 지역준비도지수(Location Readiness Index)를 활용하여 **해외아웃소싱을 전략적으로 모색**할 필요가 있다."라고 강조했다.

○ 차성근 ㈜제우스(ZEUS) 경영지원팀장은 **가치사슬상 긴밀한 관계**에 있는 **기업간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체결**함으로써 **해외 진출시 좋은 성과**를 거둘 수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이번 워크숍은 **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시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**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."라고 평가했다.

○ 한편, 산업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**정책보고서를 작성**해, 11. 16. ~17. 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**APEC 각료회의에 제출**하고, APEC 홈페이지를 통하여 **일반에도 공개** 한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구교영 사무관(☎044-203-564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워크숍 계획(안)

□ 행사 개요

○ **행사명** : APEC 중소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촉진 워크숍

* APEC Workshop on Promoting SMEs' Interation into GVCs in IT/Electronics

○ **일시·장소** : 2015.9.24(목) 09:00~17:50,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

○ **참석대상** : APEC 회원국 기업인, 연구자, 정부관계자 등

○ **주요의제 :** ①중소기업의 GVC 참여 필요성과 참여 전략, ②중소기업의 GVC 참여 지원·협력 방안, ③APEC 역내 중소기업의 GVC 참여 장애요인과 극복방안, ④GVC 참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방안

□ 주요 일정

순 서	시 간	비 고
등 록	09:00~09:30	데스크 등록
안 내	09:30~09:40	워크숍 안내
축 사	09:40~09:50	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
오프닝 세션	09:50~10:20	**기조강연 : 중소기업의 GVC 참여 필요성과 기회요인** ·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/국제중소기업학회장
세션 1	10:30~12:30	**중소기업의 GVC 참여 필요성과 추진전략** ·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GVC 참여 (Nguyen 베트남국립대 교수) · 중소기업의 중국내 GVC 참여전략 (Zhan Xi 광저우대 교수) · 중소기업의 GVC 참여효과 실증분석 (현혜정 경희대 교수)
세션 2	13:30~14:50	**GVC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** ·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과 GVC 참여(Anders ITC 과장) · GVC 진입의 새로운 방향, M&A (차성근 (주)ZEUS 팀장)
세션 3	15:10~16:30	**APEC 중소기업의 GVC 참여 장애요인과 극복전략** · 좌장 :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 · 패널토의 : Keijian Gu 중국 인민대 교수, Oscar F. Contreras 멕시코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 Tijuana 연구교수, 이준구 한양대 교수,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
	16:30~17:50	**GVC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전략** · 좌장 : 박태호 서울대 교수 · 패널토의 : 노리히코 야마노 OECD 경제분석통계과 애널리스트, 정재환 한국전자협회 실장, Songsong Zhu 중국 상무부 행정관, 차성근 ㈜ZEUS 경영지원팀장 등

참고 2 세션별 주요 발표내용

□ 기조강연

○ 중소기업의 GVC 참여 필요성과 기회요인 (김기찬 국제중소기업학회 회장)

- 대외무역 확대 위주의 국제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상대적으로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GVC 참여강화 전략이 성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

□ (세션 1) 중소기업의 GVC 참여 필요성과 추진전략

○ 신흥시장에서 중소기업의 GVC 참여 (Nguyen Viet Khoi 베트남 국립대 교수)

- 베트남 전자업계에는 주로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한 한국, 일본, 대만 등 외국기업이 내수 및 수출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어, 베트남 내 중소기업은 이들 다국적 대기업이 연계된 가치사슬에의 참여전략이 요구됨

○ 중소기업의 중국내 GVC 참여전략 (Zhanxi 중국 광저우대 교수)

- 중국의 IT 생산 및 수출은 지속증가중이나 부가가치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립 등 노동집약적 가치사슬의 비중이 크므로, 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 전략의 활용이 긴요함

○ 중소기업의 GVC 참여효과 실증분석 (현혜정 경희대 교수)

- 해외 하청업체를 활용한 생산공정 재배치 및 해외조달(offshoring) 확대가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효과는 특히 아세안 지역이 대상인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

□ (세션 2) GVC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

○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과 GVC 참여 (Anders Aeroe 국제무역센터Director)

- 해외아웃소싱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세계은행이 개발한 지역준비도 지수(Location Readiness Index)를 활용하여 기술, 비용, 인프라, 기업환경 등 최적의 거점 선정을 위한 분석을 직접 수행가능함

○ GVC 진입의 새로운 방향, M&A (차성근 ㈜ZEUS 경영지원팀장)

- 반도체 장비업체인 ZEUS는 주력사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을 강화할 수 있는 외부 기업과의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진행중